# 승리신문

자유율법

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 라.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 이겨라.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. 인 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.

2016년 2월 15일 월요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705호 The Seungni Shinmun

목사가 친딸 살해 충격

## 자식도 하나님처럼 여겨야 자유율법에 부합돼

목사이자 대학교수인 이모 씨가 부인 과 함께 여중생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기독교계에 엄청난 충 격을 주고 있다. 이 씨 부부는 가출했 다가 귀가한 딸을 빗자루・빨래건조 대ㆍ쇠봉 등으로 무려 5시간 동안 폭행 했고, 이 양이 숨진 뒤에는 이불을 덮 고 방향제를 뿌리면서 시신을 방치했다 고 한다.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"기도 하면 딸이 부활할 것이라 믿고 촛불을 켜고 기도했다"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

이에 앞서 자신의 7살 아들을 부부가 같이 때려죽인 후 부엌칼, 믹서 등으로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다. 이들 부 모는 시신 일부를 유기하거나 냉동실에 보관하였고, 아들이 죽은 후 치킨을 시 켜 먹을 정도로 엽기적이어서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또 비슷한 범 죄가 벌어진 것이다.

#### 자식을 내 소유로 인식하는 잘못된 생 각에서 벗어나야 이런 사건 근절돼

자식을 학대하는 문제는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다.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 적, 성적,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 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. 자식 이 부모를 때리는 패륜(悖倫)사건이 최 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과 반대 형태의 부모의 자식 학대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.

자식학대 문제는 자식을 자신의 소유 로 여기는 잘못된 가부장적 사고에 근 본적으로 연원한다. 내 자식이니까 내 가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 아래 신체적 으로 학대하는 것이다. 그러다보니 이



승리제단 가족들이 꽃처럼 아릅답게 웃고 있다. 웃음 천국인 이곳에선 아동학대 있을 수 없다

웃이나 타인들이 제재하기도 어려운 측 면이 있다.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하 는데 왜 참견하느냐고 하는 것이다.

####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, 자식도 하나님 처럼 여겨야 율법에 안 걸려

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유교적 질서 안 에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가부장적 봉 건적 질서가 가장(家長)을 비롯한 가족 들의 근본의식 밑에 깔려있다. 그래서 자식은 내 소유물이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부모 들이 의외로 많다. 이것은 분명 잘못된

자유율법에 의하면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이다. 빈부귀천, 남녀노소, 피부 색의 상이함을 불문하고 사람이면 다 하나님이다.

따라서 자식들도 다 하나님에 속한다.

그래서 자식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한

또한 자유율법에 의하면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. 자 식을 내 몸처럼 여겨야 한다. 자식을 내 몸처럼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.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에

따라서 자식을 내 몸처럼 여겨야 하 고,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여겨야 한다.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는 한 이런 유 형의 자식 학대 사건은 계속될 것이다.

#### 부모가 먼저 변해야 아동학대 근절돼

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또 한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하겠다. 아동 은 신체적으로 부모보다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학대에 불 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.

따라서 아동학대가 근절되려면 먼저 부모들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. 부모들이 영생학 교육을 받아서 사람은 자기 자식조차도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 후 실천하여야 한다. 그렇게 될 때에 아동학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.

#### 승리제단엔 결코 아동학대 일어날 수 없어

하지만 어떻게 자식을 하나님으로 여 길 수 있겠는가 반문할 것이다. 대답은 간단하다. 승리제단에 나와서 이슬성신 을 받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.

왜냐하면 승리제단에 나오게 되면 먼 저 피의 변화가 일어나고, 그 후에 마 음의 변화가 일어난다. 피의 작용은 마 음작용이므로 피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마음의 변화가 완벽하게 일어날 수가 없다. 자신의 잘못을 잠깐 뉘우친 후 몇 번은 지킬 수 있어도 계속해서 지키 기는 어려운 것이 인지상정(人之常情) 이다. 그래서 작심삼일(作心三日)이라 는 말이 흔히 사용된다.

하지만 승리제단에 나오면 구세주께 서 이슬성신을 부어주시어 피를 완전히 변화시킨다. 다시는 그런 못된 마음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든다. 이슬성신은 무 궁한 조화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인 것이다.

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처럼 여기 면서 사는 지상천국이 빨리 도래하기를 바란다면 한시 바삐 승리제단에 나와서 영생학을 배워서 실천하여야 한다.\*

김중천 기자

## 금주의 말씀 요절

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(75)

"주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단계"

시간 시간이 고도로 사모하며 애걸복 걸 내 주님을 일 초 일 초 찾는 생활, 일 초 일 초 주님과 더불어 속삭이는 생활, 주님을 잊어버리면 미친 사람처 럼 애걸복걸 애원하는, 주님을 잊어버 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단 계가 3단계가 되는 것이다.

주님을 잊어버리고도 멍청하게 시간 을 보내는 정도는 다시 1단계로 떨어진 것이다. 다시금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어떤 감정이 나와도 그 입을 열지 아니 하고 꿀꺽꿀꺽 참는 단계부터 다시 시 작해야 되는 것이다.

일 초 일 초 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 니하고 바라보고, 안 바라봐지면 "주님 께서 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가려진 마귀 때문이니 가리는 마귀 뿌 리째 뽑아서 박멸소탕하여 주옵소서." 하는 심정으로 애걸복걸 매달리면서 잃 어버린 내 주님을 도로 찾는, 애를 쓰 고 기를 써서 초초로 바라봐지는 단계 가 곧 3단계인 것이다.\*

## 진해제단 새식구 100일 잔치



진해제단 새식구 이순선 보살님이 2월 2일부로 100일을 출석했습니다. 지난해 10월26일 석선희 승사님의 전 도로 미륵부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영생 길의 기반이 되는 100일을 채우 게 되어 주님과 더불어 진해식구들이 모두 기뻐 축하해 주었습니다. 영생 얻고 구원받는 식구가 적다보니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. 박상구 승사님은 섹소폰으로 "하늘 오는 밝은 길이" "세상에서 방황할 때"를 은혜롭게 연 에 마른풀같이" 찬송을 해 주셨습니 다. 이순선님은 "열심히 영생길을 따 라 가겠다"하시고 "생수와 이슬성

신" 찬송가를 기존 식구 못지 않게 크고 은혜롭게 불러주셨습니다. 석 승사님은 하루하루 벼랑길을 가는 심 정이었다면서 주님이 이끌어 주셨다

이순선님 집안에 사고가 일어나는 등 미귀가 온갖 방해를 했지만 고비 를 잘 넘기고 100일을 채우게 되었습 니다. 불교를 열심히 신앙해 오셔서 탄월스님과 불교 출신들이 많은 도움 을 주었습니다. 앞으로도 전국제단에 많은 새식구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 니다.\*

이창선 / 진해제단 책임승사

## 본부제단 1월 활동 성적 시상, 4지역 3개월 연속 1등



4지역 이영애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

2016년 2월 9일 화요일 구역장회의에서는 본부제단 의 2016년 1월 성적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.

4지역이 지난 11월과 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1등을

차지하였고, 3지역과 5지역이 그 뒤를 이었다.

구역 1등에는 38구역이 1등을 차지하였는데 38구역 원들의 헌신적인 감사헌금과 김정순 승사의 인도점수 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. 21구역 역시 감사헌금과 안명숙 승사의 인도 점수로 인하여 2등을 차지하였고 45구역은 구역원들의 전도(승리신문 회원 확보), 인 도, 감사헌금의 고른 지원에 의하여 3등을 차지하였

개인성적에서는 김영민 승사와 김인숙 집사가 1지역 의 새식구 김선미님을 전도하여 인도, 새식구 21일 달 성, 그리고 헌금의 종합 점수로 1등을 차지하였고 이 만선 장로가 2등, 신순이 권사가 3등을 차지하였다. 이번 성적은 누가 1등을 할지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 웠다. 헌금뿐만 아니라 인도 점수와 새식구 열매 점수 가 합하여 대 접전이 펼쳐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.

윤봉수 회장은 시상 후 "이 길은 안다고 가는 길이

삼신일체 일인출

아니다. 주님말씀을 깨달아 그 언행이 변해야 한다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. 내가 하고 싶 은 반대로 살아야 한다. 그런데 나라는 것이 마귀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여 반대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. 그러므로 매일 매일 조금씩 나라는 미귀를 약화시켜 야 한다. 그것이 매일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보아야 하는 이유다. 열심히 예배보고 그 힘으로 하루 하루를 이기는 생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자."라고 강조 하였다.

\*지역 1등: 4지역(지역장: 박명하, 지회장: 이영애) 2등: 3지역(지역장: 김갑용, 지회장: 정은경) 3등: 5지역(지역장: 박철수, 지회장: 신순이)

\*구역 1등: 38구역(구역장: 김정순) 2등: 21구역(구역장: 안명숙) 3등: 45구역(구역장: 신순이)

\*개인 1등: 김인숙 집사 2등: 이만선 장로 3등: 신순이 권사\*

###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

성금계좌 : 우체국 103747 - 02 - 134421 예금주 : 이승우

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

누구든지 내 몸처럼

#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敎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

##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



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



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



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

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(호세아 14:5)이라 빛의 형상(요한 1장)으로 나 타난다.

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 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 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 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.

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 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.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.

본지 지난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://www.victor.or.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.